直指 정신과 현대미술의 성공적 '콜라보'

직지코리아 주제 전시
'직지, 금빛 씨앗' 展


최정화 작가의 작품 '마음(Rhizome)' 은 시민과 서예가 등 900명이 쓴 활자를 하나하나 모아 만들었다.

현존하는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의 창조적 가치가 현대미술과 만난 전시회와 일련의 축제 행사가 초가을에 대중을 찾는다.

청주시가 주최하고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이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직지, 세상을 깨우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인류 인쇄문명의 혁신을 보여준 〈직지〉의 정신을 알리는 국제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주제 전시 '직지, 금빛 씨앗'전이다.

직지를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금빛 씨앗으로 정의해,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등 11개국 35개팀의 작가들이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재조명한 작품을 선보인다. 대부분이 이번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신작이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조직위는 다수의 작품을 장기 소장해, 국내외 연계전시를 통해 직지를 알릴 계획이다.

전시는 크게 △'빛, 그림자를 보다(Behind Illumination)' △'빛과 어둠이 만나다(Eclipse)' △'빛, 다시 비추다(Re-Illumination)'로 나눠져 있으며, 다시 소주제로 세분화된다.

'빛, 그림자를 보다(Behind Illumination)'에서는 활자 문명의 변천사를 그려낸 연대기와 일러스트를 통해 지금껏 조명되지 못한 직지의 숨은 가치와 역사를 볼 수 있다. '빛과 어둠이 만나다(Eclipse)'는 건축가가 임시 구조물을 디자인한 문자터널과 은하계를 표현하는 새로운 스테인드글라스가 전시공간을 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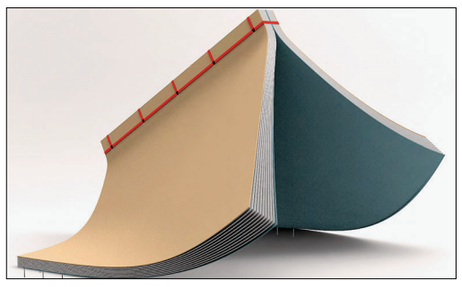
마지막인 '빛, 다시 비추다(Re-Illumination)'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직지에 대한 예술가들의 해석을 볼 수 있다. 재료와 질감을 살린 작품부터, 예술과 과학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요작품으로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론 아라드(Ron Arad)가 조형물이자 건축물인 '직지 파빌리온'을 선보인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담은 '직지, 금빛 씨앗' 전시를 목차로 나누어진 책으로 본다면 파빌리온은 표지와 같다.

직지의 제본 형태인 선장본에 영감을 받아, 옛 책을 엎어놓은 형태를 하고 있다. 모듈러 형식으로 조립·해체·설치가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높이 12m, 넓이 64㎡의 건축물인 이 작품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청주시가 소장해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될 예정이다.

오는 9월 1~8일 청주 일원 개최
11개국 35개 작가팀 참가 '눈길'
미디어아트·VR 등 융복합적 전시
'직지코리아', 국제행사로 승격돼
전시·공연·컨퍼런스 등 행사 다채


론 아라드가 제작한 '직지 파빌리온'의 조감도.

한국 작가의 작품 중에는 최정화 작가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그는 〈직지〉에 사용되었던 한자를 한글로 형상화하며, 그 의미를 '마음'으로 풀이한다.

시민과 서예가 등 900명이 쓴 활자를 하나하나 모아 만든 작품 '마음(Rhizome)'부터 인지의 구성 요소인 '색·수·상·행·식'을 형상화는 '오온(Ohon)', 활자를 붙여서 나선으로 쌓아 올린 작품 '마음(心, Multiverse)'까지 모두 불교적 의미가 담겼다.

수년간 〈직지〉의 글을 모사한 신용일 작가의 작품도 눈여겨볼만 하다. 불교에서 실체가 없는 절대적 존재를 뜻하는 용어인 '순야타(Sunyata)'를 작품 제목으로 사용한 그는 반죽이 된 흙을 비닐봉지에 채우고, 조그만 구멍을 뚫어 캔버스 판에 '흙' 글씨를 써내려간다. 흑은 정성스레 쓴 글씨를 돌가루와 흙이 섞인 물감으로 지운다.

이를 다시 헝겊으로 닦아내면 사라졌던 글자가 마티에르 위해 나타난다.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작업들이다.

또한 전시회에는 직지와 구텐베르크 성서, 훈민정음 발명에 영향을 끼친 유물도 전시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직지〉보다 더 오래전 만들어졌다는 금속활자본 〈증도가〉 등을 통해 직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 전파했는지를 보여준다.

구텐베르크 인쇄술 발명까지 이르게 했던 상업적 의도를 반사경과 면죄부를 통해 알려준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전, 세종실록에 실린 한 구절과 측우기로 애민사상을 보여주고 한글을 쉽게 깨우치도록 만든 '용비어천가'까지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직지코리아에서는 글로벌 유명 연사들의 릴레이 강연 '골든씨드 라이브 쇼'를 비롯해 6회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세계인쇄박물관협의회 창립총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직지코리아는 올해 처음 국제행사로 치러지는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놓치면 후회할 직지코리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43)271-936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폭에 피워낸 부처… 여기가 바로 불국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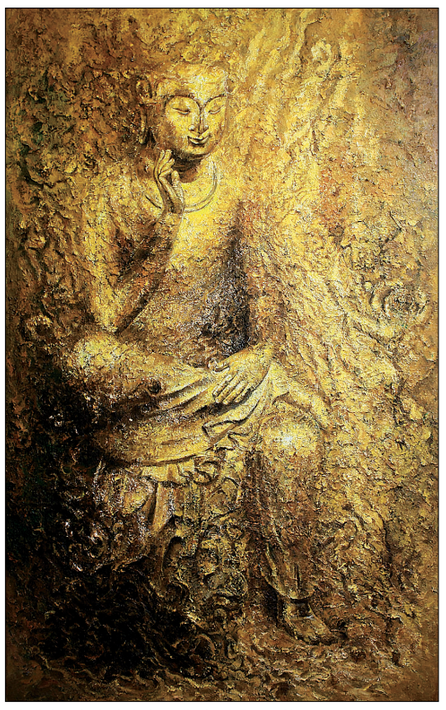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
신진작가 및 개인전 잇달아
조영아 '라오스 그리기'展
이혜숙 '南無 思惟佛' 전시
부처를 주제로 작품 그려내

다양한 서양화 기법으로 그려진 부처님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1관과 2관에서 신진작가공모 당선 작가전과 개인전 전시를 각각 개최한다.

불일미술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신진작가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조영아 작가의 전시회는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열린다.

조 작가의 전시 주제는 '라오스 그리기.' 지난해 여름 불교국가 라오스를 여행한 작가는 라오스의 정감 있는 일상에서 감명을 받고 여행 중에 마주하는 그대로를 편안하게 스케치하고 수채화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혜숙 작가의 '나무에게 길을묻다'

불일미술관은 "라오스의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보며 가끔은 쉼을 위한 쉬어가는 여정이 필요함을 알아차리게 하는 따뜻한 전시"라고 평했다.

현재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이혜숙 작가의 개인전 '나무 사유불(南無 思惟佛)'은 같은 부처님을 그렸지만 표현 방식이 조 작가와는 다르다. 유화로 그려낸 그의 작품은 사실적이면서 표현력 또한 매우 풍부하다.

작가는 불교적 세계관의 새로운 화풍을 선보이며 연기적 새로운 변주를 하고자 한다. 친숙하면서도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래서 전시 주제도 '나무 사유불'이다.

불일 미술관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무 아래서 태어나고 정각을 이뤘다. 이처럼 여래가 곧 나무였고 나무가 곧 청정도량이었다"면서 "작가는 나무를 통해, 고요한 사유에 귀의하는(南無), 중생의 여래를 그려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작가의 전시는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지역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로 오세요

27일 수국사 '나눔의 노래'
28일 보덕사 '호수 음악제'

늦여름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잇달아 열린다.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는 8월 27일 오후 7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2회 수국사 나눔의 노래'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구산동 주민자치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산사음악회는 이종만 풍경소리 실장이 이끄는 뉴트리팝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가수 한영애, 우순실, 비보이 퓨전 MC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또한 주지 호산 스님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소리꾼 장사익 씨가 수국사 태극선수련회와 함께 태극권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끈다.

수국사는 여타 산사음악회와 달리 무료공연이 아닌 일부 유료로 티켓을 판매한다. 이유는 지역 청소년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음악회를 통해 모인 기금은 전액 은평구청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02)356-2001

충남 당진 보덕사(주지 정안)는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제9회 보덕사 호수음악제'를 연다. 8월 28일 보덕사 경내 특별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음악제는 국가 및 종교, 인종, 승속의 장벽을 넘어 문화를 공유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축제의 시작은 당진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캄보디아, 베트남 등 각 나라별 모임들의 전통공연이 알린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도 이뤄진다.

본행사인 호수음악제는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 판소리 강경민, 소프라노 유현주, 바리톤 박성준, 초대가수 나현아, 김국환 등의 무대로 가득 채워진다.

주지 정안 스님은 "호수음악제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이웃들이 당진 시민들과 함께 서로 이해하고 삶의 동반자로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된 자비의 공간"이라며 "음악을 통해 소통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해 당진시가 화합·치유의 성지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041)353-9306

신성민 기자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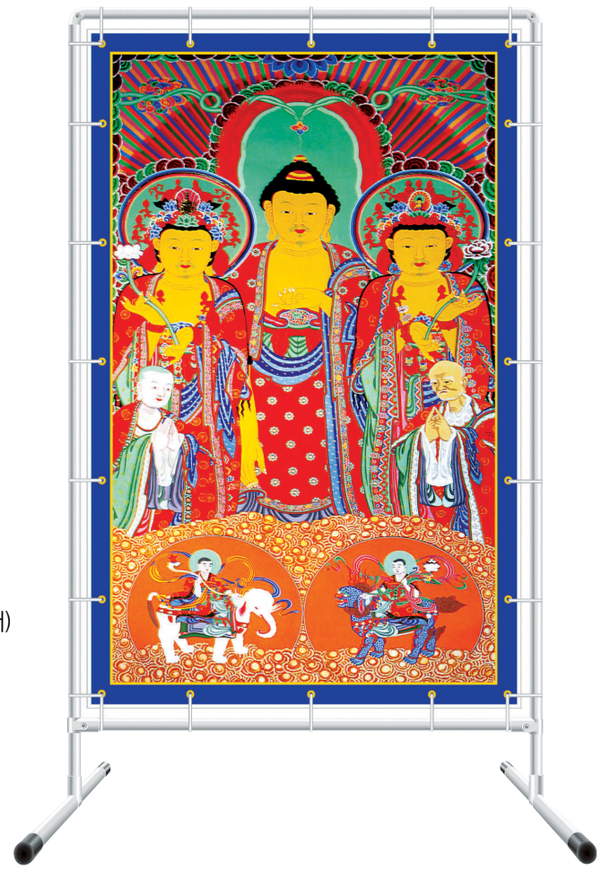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